

다시 푸는 경서

치문경훈 (30)

孤山圓法師 示學徒 (고산원법사 시학도) ④

居乎師立 誠無懈德 趣乎佛果 決定不疑
거호사위 랑무참덕 취호불과 결정불의
汝無懈怠 小見知 樹立大我 慢
여무공널소소견지 수립대대어만
輕侮先覺 發惑後生
경모선각 형혹후생
수운정심 미보과구 언혹유중 여조사지

스승의 자리에 머물러서 덕이 옛사람
에 미치지 못함을 부끄러워 할 줄 알면
불과로 나아갈에 결단코 의심할 게
없으리라.

그대는 조금 아는 소소지견을 배웠다
자랑말고

아만을 잔뜩 키워서 선각을 업신여기
지 말며 후학들을 현혹케 하지 말지어
다.

비록 듣고 찾는 게 허물과 때를 없애
는데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하나
말 속에 혹은 맞는 게 있을 터이니
그대들은 그 점을 생각하라.

道安法師 遺誡九章 (도안법사 유계구장) ①

敬錄諸弟子等

“탐하지도 다투지도 헐뜯지도 않으며 고통을 참고 욕됨을 감수해야 도의 경지”

경사제제자들
夫出家修道至重至難 不可自輕 不可自易
부출가위도지중지난 불가자경 불가자이
所謂重者 荷道無德 樂仁負義
소위중자 하도패덕 영인부의
奉持守戒 死而有己
봉지정계 사이유이

여러 제자에게 공경히 사례하노니(사
례의 뜻으로 계를 남기노니)

무릇 출가하여 도를 닦는다는 게 지
중지난하에 스스로 가볍다거나 쉽다
고 하지말라

이러바 중하다 하는 것은 도를 등에
지고 덕을 허리에 차고 인을 어깨에 메
고 의를 머리에 이어

정한 계를 받들어 지내서 죽어야 그
치게 되는 것을 말한다.

所謂難者 絕世難逢 永劫難愛
소위난자 절세리속 영합친애
廻轉易性 不可於眾
회정역성 부동어중
行人所不能行 割人所不能割
행인소불능행 활인소불능활
忍苦受勞 捐軀命命 謂之難者 名曰道人
인고수속 연기구명 위지난자 명일도인

이러바 어렵다는 것은 세상인연을 끊

고 속세를 여의어서 영구히 부모의 사
람을 배고

뜻을 돌이켜 성품을 바꾸고 속세무리
에 동화되지 않으며

사람이 실행하지 못하는 것을 하고
배이지 못하는 바를 배이며

고통을 참고 욕됨을 감수하고 목숨을
버리는 것이라 어렵다 하는 것이니 가
로되 도인이다.

道安者 導人也 行必可覆 言必可法
도안자 도인야 행필가리 언필가법
被服出家 動爲法則
피복출가 동위법칙
不食不淨 不穢不惡
불식부정 불참복특
學乎高遠 志在玄默 是爲名稱
학문고원 지재현묵 시위명칭

도인이라 사람을 인도하는 것이라서
행함에 반드시 본받을만 하며 말을 받
드시 법상승만 하다.

법복을 입고 집을 나서면 움직임마다
법이 되는지라

말하기도 다투지도 않으며 헐뜯지도
간혹하지도 않고

학문은 높고 깊고 뜻은 깊고 고요하
나(마음 깊숙히 뜻을 두니) 도인이라
이름한다.

參立三尊 出賢入聖 漸除精魂

참위삼존 출현입성 적제정혼
故得君主 不望其報 父母不望其力
고 득군주 불망기보 부모불망기력
普天之人 莫不歸德
보천자인 막불귀덕
捐妻饋養 供奉衣食
헌처감양 공봉의식
屈身俯仰 不辭勞恨者 以其志行 濟濟
굴신부양 불사로한자 이기지행 청결
痛於神明 淡泊處白 可高可貴 故
통어신명 담파허백 가가귀고

(포함) 삼보의 자리에 참여하고 들고
남에 현성이라 정기와 혼백(심식)을 씻
어 맑힌다.

고로 군주가 그 과보를 바라지 않
으며 부모가 그 힘을 바라지 않아도(군
주나 부모가 바라는 바가 아니며)

은 세상 사람이 끌어안겨 포섭되지
못함이 없나니

(사람들이) 아내를 버리거나 그 몫을
덜어 옷과 음식으로 공양하고

몸을 굽혀 우러러 받들되 험등고 한
스러움을 마다하지 않는 것은

그 뜻과 덕행이 맑고 깨끗하여 신명
에 통하고 욕심이 없이 담백해서 가히
기특하고 고귀한 까닭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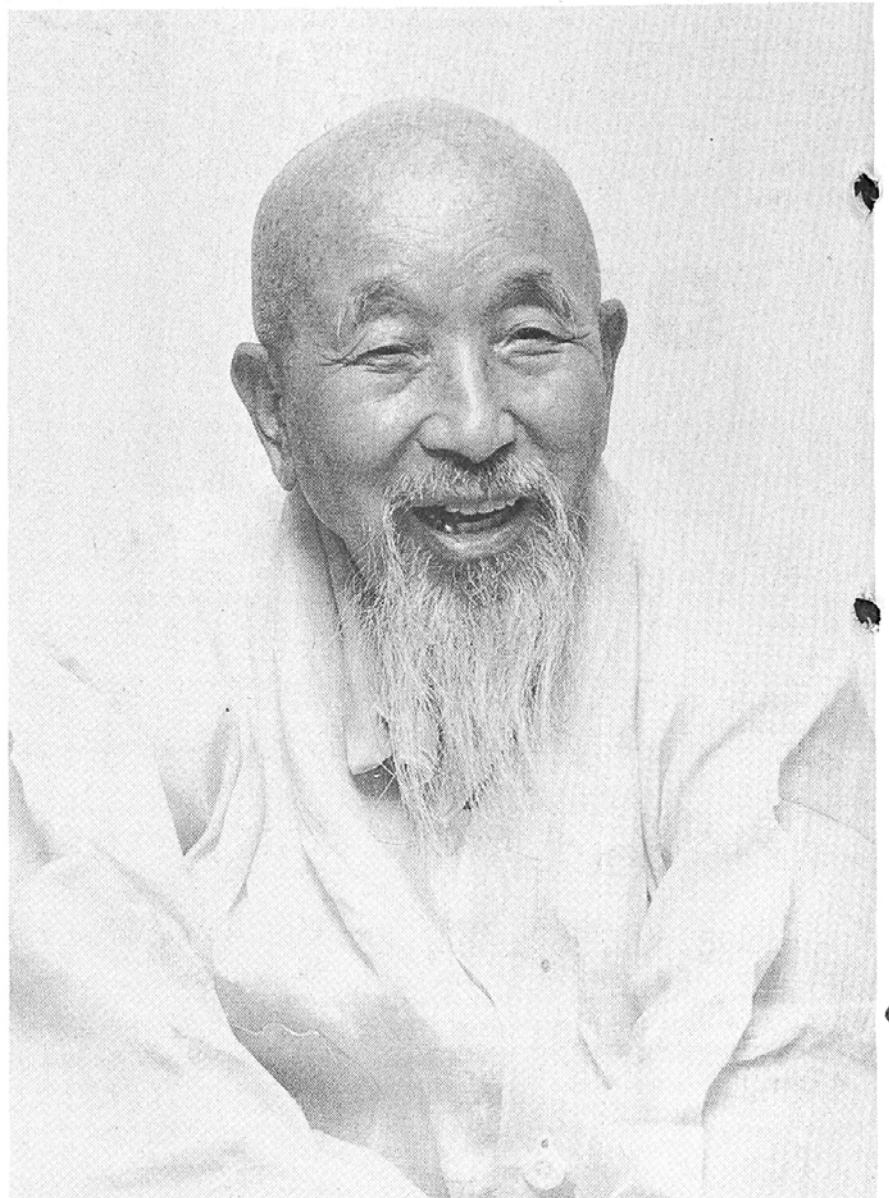
龍眼



지 상 법 석

“잇단 대형사고는

비룡스님 (월정사 조실)



약 력

- 1901년 생
• 1927년 한일스님
은사로 득도
• 조계종 원로회의
의원

요즘을 우리 사회의 현실을 보면 삼강오
륜, 윤리도덕 등이 모두 무너져 버린 것같
습니다.

윤리·도덕이 바로서야 화합이 잘되고
남북평화통일도 순조롭게 이루어지는 것입
니다. 다시말해 윤리도덕을 바탕으로 국민
들이 화합해야 하는데 그렇지가 못한 것같
아 늘 안타까울 뿐입니다. 곳곳에서 일어
나는 대형사고가 바로 탐욕을 질제하지 못하
고 충심으로 화합하지 못한 결과물입니다.
이렇게 화합이 잘 안된 상태에서 통일이
된다해도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불자들은 대재대비한 불법으로 화합
해야 하는 것입니다.

화합이 잘되면 부처님 법도 흥하고 나라
도 흥하게 돼 평화로운 세상이 자연히 열
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교가 중요
하고 특히 오늘날은 부처님의 진리가 어느
때 보다 중요시 되는 것입니다. 중심을 잃
고 방황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바로 잡는
것이 불교의 핵심입니다. 불자들은 이런 진
리를 바로알고 누구보다 먼저 화합의 길에
앞장 설 줄 알아야 합니다. 농사를 짓고 장
사를 하고 정치를 하더라도 이 진리는 마
찬가지입니다.

모든 헛된 망상들을 과감히 끊어버리고
진정으로 자신의 직업과 역할에 전념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기·배금주의 만연은 삶의 중심이 없기때문 화합의 길 앞장 설 때 자신도 사회도 건강”

죽 모든 생활에 있어서 진실하고 올바른
삶을 추구할 때 우리의 사회는 건강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사회의 세태를 보
면 이기주의, 개인주의, 기회주의, 배금주
의가 만연합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단
합은 고사하고 나라가 흥할 수 없는 것입
니다. 이런 모든것을 다 버리고 바르게 실
천수행해야 화합이 잘되고 나라도 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언제든지 바
르게 생활하는 습관을 지녀야 합니다. 특히
교육의 현장에 있는 교육자들은 이런 법을
명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교육을 받
고 있는 청소년들이 미래사회의 주역이기
때문입니다. 입시위주의 교육이나 암기위
주의 교육에서 하루빨리 벗어나 열린교육,
참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참교육이라는 것은 윤리·도덕을 가르치
는 것입니다. 이런 교육이 나라를 건강하게
하는 길이며 국민모두가 바로 애국하고 부
모에게 효도하는 것입니다.

다시말해 예의가 바로서야 나라도 바로
서는 것입니다. 특히 윤리·도덕교육은 모

든 욕심을 버리고 꾸준히 실시해야 합니다.

출가자의 공부도 이와 같습니다. 수행정
진하는데 욕심이 잔재하고 있다면 성불은
고사하고 올바른 수행도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식들은 항상 탐·진·치의 삼
독심을 버리고 정진할 때 올바른 수행을
하는 것이고 상불할 수 있다고 옛조사들이
강조한 것입니다.

그런데 처음 수행의 길에 드는 수행자
이런 번뇌망상들을 소멸하기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수행자가 가부좌를 틀고
화두에 들어가면 온갖 삿된 꿈이 꾸어지고

혼란에 빠지기도 합니다.

수행자 가운데 번뇌망상이 많은 사람은
삿된 꿈이 헤아릴 수 없이 일어나고 번뇌
가 없는 사람은 삿된 꿈이 일어나지 않고
속히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저의 사형 가운데 보문스님이 계셨습니
다. 스님은 상원사에서 용맹정진했는데 일
주일만에 깨달음을 얻었다고 합니다.

스님의 용맹정진하던 이야기를 들어보면
번뇌를 끊기란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알
수 있습니다.

보문스님이 처음에 화두를 들고 하나하

나 풀려고 수행에 들었을 때 갑자기 붉은
황소가 나타나 단단한 팔로 받들고 달려
들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마음속에 번뇌가
가득 쌓여 있기 때문입니다. 신관심과 번뇌
가 마음 속에 가득하기 때문에 이런 삿된
꿈을 꾸게되고 꿈속에서 헤어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불같이 타오르는 번뇌덩어리인 붉은 황
소를 물리치려고 입술을 깨물며 수행을 하
다보면 마침내 붉은 황소가 서서히 없어지
고 다시 검은 황소가 나타납니다. 이번에는
검은 황소를 붙잡으려고 온갖 몸부림을 치

나만의 개성과 우아함 청우



JEWELRY CHUNG WOO

섬세하고 정교한 제품,
서정적인 주제와 독특한 감성표현,
각개인의 개성을 소중히 하는
디자인.....
청우에서 당신만의 개성을
만나십시오

흔수예물에서 다양한
보석장신구류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제품이 준비 되어 있습니다.

- 청우 유자야
전시경력
1971-1972 국전 서양화 부문 입선 20회 21회
1976 파리 니델제산 공모전 입상
1977 파리Cite International des arts
주최 전람회 출품
1978 불란서 전국 사진공모전 출품
1979 불란서 파리 미술대학
미술 석사학위 취득
1979 파리 프리마그 로지에 공모전 입상
1980 파리 화랑 전람회 출품
1977 불란서 예술원 공인 미술작가
1980.6 제 1회 개인전(신세계 벽화형 화랑)
1982-1984 한국 공예가회 출품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665-1.2
한양타운 107호 / 우편번호 35-120
TEL 3442-4434~5

월간 대중불교 10월호
정벌의 눈
특별기고
못 다한 교리강좌
특 집
내가 읽은 경전
적막한 깨실의 간경삼매-〈반야심경〉/ 연관
간결한 핵심-〈법구경〉/ 목정배
여래의 지극한 본성-〈원각경〉/ 송찬우
팔만의 진수이자 개론-〈능엄경〉/ 혜정
너희도 무대의 주인공이 되리라-〈법화경〉/ 황남재
수행으로 가는 길 7
알고 믿는 믿음, 모르고 믿는 믿음 / 이재열
에세이 보살보교 10 / 범장보살 1
아미타 정토를 이룬 범장보살 / 일지
신행상담 이교도인 장남 대신 차남이 제사를 모셔
도 되는지요? / 성덕
일상을 깨우는 산문들
수행길의 이면 도반
보살화현, 대구의 김내과병원 원장 / 효림
포교당 일기 7 광터 사람들 / 원욱
선화일면 마음이 가는 길 / 실산
한조각 깨달음이 있는 수필 / 박승현·정영숙·박봉은
해외불교 일기
현생의 나라, 티베트 4 번째 공룡조 / 김신정
봉주루, 김삼 득일 나들이 / 지록
한국밖의 한국불교
서부하늘에 드날리는 한국선종 / 정윤실
떠어나가는 불교
적정불교 국민체육진흥공단 무량회 / 오경숙
정기구독신청은
(02)773-5731, 754-1614